

조선 중·후기 사찰 견직물에 나타난 특성

장 현 주 · 권 영 숙

동명정보대학교 패션디자인학과 전임강사(기간제) · 부산대학교 의류학과 교수

Characteristics of Silk Fabrics which was Collected in Temples of the Middle and the Latter Term Chosun Period

Hyun-Joo Jang · Young-Suk Kwon

Full-time Lecturer of Dept. of Fashion Design, Tong Myoung Information Univ.
Professor, Dept. of Clothing & Textiles, Pusan National Univ.

(2001. 6. 13 투고)

ABSTRACT

An empirical review on silk fabrics of the Chosun period showed that they varied in kind and design according to their uses. Thu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lassify the fabrics into temple and excavated fabrics according to their uses and collected places and then to examine characteristics of each type.

Concerning fabrics collected in temples, satin was most used, followed by twill, tabby, multiply, leno and gauze and closing fabrics in order. Tabby and silk fabrics used Ju(紬) as their main material. Cho(絹) was much more used in fabrics collected in temples than in excavated ones. This indicate that Cho(絹), more luxurious than Ju(紬), had divine applications such as covering Buddha's bones of temples. Brilliant, colorful multiply fabrics using goldern and color threads had high effects of ornamenting altar covers, umbrellas, surplices and palanquins. Fabrics held in temples adapted composite designs, in which more than two shapes were used, rather than single ones. Single designs employed plant shapes in most cases, followed by treasures pattern, geometrical, cloud and animal shapes in order. Most composite designs used a combination of animal and plant shapes, followed by plant and geometry, treasures pattern and plant, cloud and animal, and animal, treasures pattern and plant in order. Few excavated fabrics used animal designs while fabrics collected in temples were often designed with shapes of propitious animals such as dragon. Treasures pattern, representing a good omen of Buddhism, was often used singly or sometimes compositely with another design.

Key words: fabrics collected in temples(사찰직물), tabby fabrics(평직물) compound woven fabrics(중조직물), leno and gauze fabrics(익직물)

I. 서 언

직물은 그 직물이 가진 고유의 물리적인 특성 외에도 사용처 즉 용도에 따라 종류가 달라질 뿐만 아니라 여기에 사용된 문양에서도 비교적 뚜렷한 특성을 발견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조선시대 견직물의 소장지별 특성을 고찰하기 위한 것으로 본 보에서는 우선 사찰직물을 중심으로 고찰한다.

사찰직물은 국내 각 사찰에서 발견된 직물로서 일반적으로 불복장직물로 알려져 있다. 발원자가 착용하였던 의복, 사리, 서적 등의 내용물을 싸두었던 보자기, 혹은 발원문을 적은 천, 상징성을 지닌 여러 형태의 조각 등을 비롯하여 불교의식에 사용했던 각종 장식구의 직물 등을 포함하며 이것은 오랜 세월 지하에서 물리 화학적인 변화를 거친 출토 직물에 비해서는 비교적 상태가 양호한 편이다.

국내에서도 조선시대 사찰직물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으며¹⁾ 이미 여러번 학회에 보고된 바 있다. 이들은 거의 대부분 불복장직물로서 불상을 조성하여 봉안할 때 불상의 몸안에 함께 넣었던 직물들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본 연구는 조선시대 사찰소장 견직물 가운데 경상남도 양산시 통도사 박물관 및 적천사에 소장되어 있는 견직물로서 淨屬에서 출현한 직물, 불복장직물, 불교 행사때 사용했던 장식구의 직물을 중심으로 각 유형과 문양을 고찰하여 한국 전통직물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출토직물과는 다른 사찰직물이 가지는 특성을 알아보고자 하였으며 이것을 향후에는 다른 사찰 견직물 및 출토 견직물과도 비교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II. 연구대상

연구대상은 조선시대 중, 후기 사찰직물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표 1>은 각 시기별 사찰직물의 출처이다. 본 연구에서는 제1기(1392년~임진왜란전 16세기까지)에 해당하는 사찰직물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제2기(임란후 17세기~18세기 초반까지)와 제3기(18세기 중반 영.정조

대~19세기까지)의 결과를 중심으로 다루고자 한다.²⁾ 그리고 제1기의 사찰직물의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서 흑석사 소장직물³⁾과 제1·2기의 박윤미·정복남이 조사한 佛腹藏직물⁴⁾에 대한 연구결과와 비교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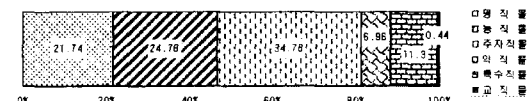
<표 1> 사찰직물의 출처⁵⁾

시 기	출 처	용 도	소 계
제2기	통도사 부도직물	사리용기의 덮개, 깔개, 보자기류, 사리구를 움 직이지 않도록 채워넣는 보공품	24
	적천사 불복장직물	직물조각	21
	통도사 소장직물	가마장식	40
제3기	통도사 부도직물	사리용기의 덮개, 깔개, 보자기류, 사리구를 움 직이지 않도록 채워넣는 보공품	13
	통도사 소장직물	卓衣, 가마장식, 袈裟, 방석, 日傘, 幡, 旗	132
총 계			230

III. 사찰견직물의 특성

1. 유형 특성

<그림 1>은 사찰직물 중에서 각 유형별 출현율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 1> 사찰 견직물의 유형별 출현율

사찰직물에 나타난 견직물 종류별 출현율은 주자직물의 비중이 34.78%로 가장 높으며 그 다음은 능직물 24.78%, 평직물 21.74%, 중조직의 특수직물

11.30%, 익직물 6.96%, 교직물 0.44%의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손쉽게 제작할 수 있는 평직물의 비중보다도 주자직물의 비중이 오히려 더 높게 나타난 것이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다. 그 이유는 먼저 제2기와 제3기의 직물만 다루었으므로 제3기로 갈수록 緞직물의 비중이 높아져서, 상대적으로 緞이 사찰직물로 많이 사용된 듯한 느낌을 준 경향도 있지만 조선시대에는 緞의 시대라는 선행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금사, 은사, 색사 등을 사용한 이중직의 특수직물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

1) 평직물

사찰직물에 사용된 평견직물은 제2기, 제3기 모두 絹, 紬, 絹 3가지 유형이 있으며 絹은 10점, 紬는 32점, 絹은 8점이다. 紬는 관청수공업 뿐만 아니라 민간수공업이 발달하는 조선후기에 각 지방별 특산직물로 다양하게 생산되었던⁶⁾ 직물로서 이 시기 紬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은 당연한 결과이며 조선시대 평견직물 중 紬가 가장 널리 사용되었음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출토직물에 비해서는 비교적 絹의 비중이 높는데, 이것은 絹직물이 매우 얇으며 마치 잠자리 날개와 같은 섬세한 재질을 가지는 평견직물로서 絹, 紬보다 고급 직물인 絹가 사찰에서 사리구를 싸는 보자기 등 불교행사에 사용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 반면에 출토직물에서는 絹직물을 발견하기가 그다지 쉽지 않은데 이것은 오랜 세월이 흐르는 동안 지하에서 여러 가지 물리·화학적인 열화 과정을 거치고서도 원상태로 보존되기는 거의 어려운 일이므로 출토직물에는 처음부터 익직물의 사용이 드물었거나 아니면 오랜 시간의 경과로 인하여 거의 부식되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浮屠직물 중 2점의 絹는 모두 0.1mm 정도의 가는 선으로 식서가 정교하고 섬세하게 제작되어 있어 당시 견직물 제작기술의 정도를 알 수 있으며 이 중 1점은 양쪽 식서부분이 모두 남아 있어 포폭이 34cm임을 알 수 있다. 다음 <표 2>는 사찰직물 중 제2기, 제3기 평직물의 용도이다. 평직물은 가마장식, 方席, 幡 그리고 보자기 등의 광범위한 용도로 사용되었다.

2) 능직물

사찰직물의 능직물에는 平地浮紋綾, 平地綾紋綾, 綾地綾紋綾, 綾地無紋綾의 4가지 유형이 있으며, 平地浮紋綾 23점, 平地綾紋綾 10점, 綾地綾紋綾 22점, 綾地無紋綾이 2점으로 平地浮紋綾과 綾地綾紋綾의 비중이 높다.

綾은 조선시대에도 계속해서 관청수공업 및 민간수공업으로 꾸준히 제작되어 왔으며⁷⁾ 조선시대에는 3~5매 능직이 모두 사용되었는데 이 중에서는 특히 4매 경능직이 많이 사용되었다. 이것은 고려시대 阿彌陀佛 腹藏직물 중 綾地綾紋綾 31점의 바탕 무늬조직이 대부분 3매능인데⁸⁾ 비하면 한층 다양해졌다.

다음 <표 3~4>는 사찰직물 중 제2기, 제3기 능직물의 문양과 용도이다.

<표 2> 사찰직물 중 평직물의 용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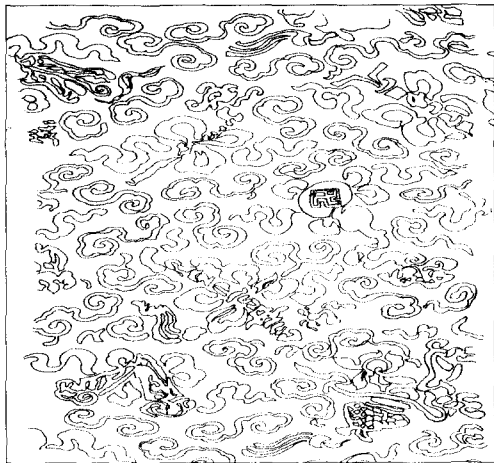
서 기	제2기			제3기		
	絹(N=2)	紬(N=17)	絹(N=7)	絹(N=8)	紬(N=15)	絹(N=1)
용 도	가마장식	조각, 가마장식	보자기, 조각	幡, 가마장식, 方席	가마장식, 方席, 袈裟	보자기

<표 3> 사찰직물 중 제2기 능직물의 문양과 용도

시 기	제2기		
직물명	平地綾紋綾(N=4)	綾地綾紋綾(N=8)	綾地無紋綾(N=1)
문 양	기하학문	花紋, 寶紋(方勝, 卍), 龍, 如意紋, 雲紋	.
용 도	사리구 방석, 조각	사리구 방석, 조각, 가마장식	가마장식

<표 4> 사찰직물 중 제3기 능직물의 문양과 용도

시 기	제3기			
직물명	平地浮紋綾(N=23)	平地綾紋綾(N=6)	綾地綾紋綾(N=14)	綾地無紋綾(N=1)
문 양	寶紋, 쌍용, 도류불수, 마음보, 花紋	능화관, 花紋, 기하학문	寶紋, 학, 구름, 원형, 소나무, 박쥐, 기하학, 花紋, 龍紋, 능화관	.
용 도	幡, 日傘, 袈裟, 가마장식, 旗, 사리구 방석	袈裟, 方席, 가마장식	卓衣, 幡, 旗, 方席, 가마장식, 보자기	사리구 방석



(사진 1) 평지부문능-통도사 소장, 旗

문양은 대부분 寶紋이 많으며, 龍紋, 花紋, 기하학문 등도 많이 사용되었다. 그리고 이것은 가마장식, 方席, 幡, 日傘, 袈裟, 旗, 卓衣 등 평직물보다 더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사진 1)은 통도사에 소장되어 있는 旗에 사용된 직물 문양의 도식화이며 보문으로 여기에 사용된 문양은 음

양관, 옥선, 통소, 보검, 어고 등이다.

3) 주자직물

사찰직물의 주자직물에는 無紋緞이 18점, 紋緞이 62점으로 紋緞의 비중이 훨씬 높게 나타났다. 사찰직물에서는 無紋緞 보다 紋緞이 훨씬 많이 사용되었으며 무늬가 있는 紋緞직물을 더 귀하게 여겨 사찰직물로 봉안된 것으로 보인다.

조선시대 전시기에 걸쳐 緞직물의 제직은 상의 원⁹⁾ 단자직조색¹⁰⁾ 그리고 통직¹¹⁾ 등의 관청제직 기관에서 꾸준히 이루어졌다. 그리고 전시기 제직 금지령¹²⁾, 무역금지령¹³⁾ 등의 기록에 紋緞직물의 명칭은 無紋緞직물보다 훨씬 많다. 그리고 16세기에는 민간수공업으로 緞직물을 제작하기도 하였으며¹⁴⁾ 이것은 六矣塵의 線纏과 지방 場市를 통해 전국적으로 유통되었으며 14~15세기에는 일본으로 수출되기도 하였던¹⁵⁾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견직물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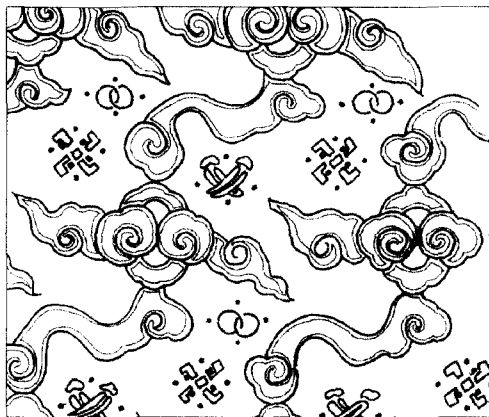
제2기에서 제3기로 갈수록 5매 주자직 보다 7~8매 주자직의 紋緞직물이 많아지는 것으로 보아

<표 5> 사찰직물 중 주자직물의 문양과 용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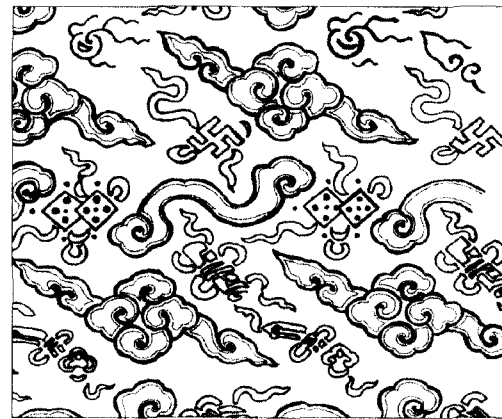
시 기	제2기		제3기	
직물명	無紋緞(N=5)	紋緞(N=32)	無紋緞 (貢緞, N=13)	紋緞(N=30)
문 양		복숭아, 壽, 福, 보문, 국화문, 卍, 龍紋, 운문, 석류	공작, 글자문(壽)	花紋, 석류, 쌍용보문, 능화관, 매단죽, 雲紋, 卍, 壽字, 도류불수, 박쥐
용 도	사리구 방식, 조각, 가마장식	사리구 방식, 조각, 가마장식	卓衣, 幡, 方席, 가마장식, 사리구 방식	卓衣, 幡, 日傘, 方席, 旗, 袈裟, 가마장식, 사리구 방식

조선후기로 갈수록 더욱 크게 발달했음을 알 수 있다. 다음 <표 5>는 주자직물의 문양과 용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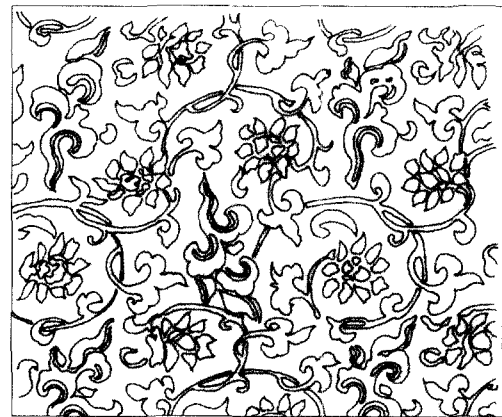
사용된 문양은 능직물과 마찬가지로 寶紋이 가장 많으며 그의 용문, 글자문, 花紋, 석류, 복숭아문 등이다. 그리고 卓衣, 幡, 方席, 袈裟, 가마장식, 日傘 등 장식효과가 많은 불교 의식구에 다양하게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사진 2) 문단-통도사 소장,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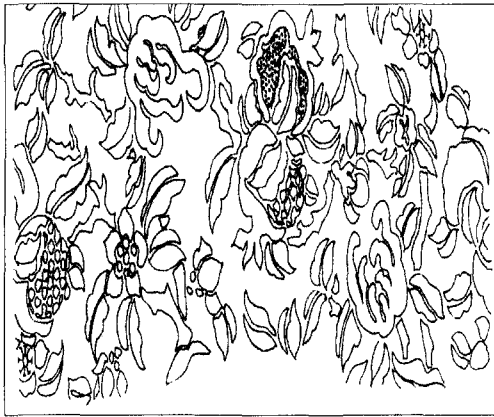


(사진 3) 문단-통도사 소장, 旗



(사진 4) 문단-흑석사 소장
김영숙(1997), 앞책, p.77

(사진 2~3)은 통도사에 소장되어 있는 방식 및 旗에 보이는 寶紋이다. (사진 4)는 흑석사에 소장되어 있는 문단직물의 당초문양 및 연화문양의 도식화이며 (사진 5)는 통도사에 소장되어 있는 가사에 사용된 도류불수 등의 식물문양의 도식화이다.



(사진 5) 문단-통도사 소장, 가사



(사진 6) 紋紗-통도사 소장, 卓衣

4) 익직물

사찰직물의 익직물에도 紋紗, 無紋羅, 紋羅의 3가지 유형이 있으며 이중에는 紋紗 2점, 無紋羅 6점, 紋羅 8점이 있다. 조선시대는 고려시대에 비해 익직물이 많이 사용되지 않았으며 그 조직도 단순한 2經紋羅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제작후 2차적인 장식기법을 가하는 紋羅직물은 1점도 찾을수 없었다. 유물은 모두 2經紋羅 조직이지만 사직으로만 제작한 것보다는 여직과 사직이 혼용된 조직이 제3기로 갈수록 많아진다.

그러나 출토직물에 비하면 그 수가 비교적 많은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얇고 가벼운 익직물은 평직물의 紵직물과 마찬가지로 장식적인 용도로 많이 사용된 것이라 생각된다. 다음 <표 6>은 사찰직물 중 익직물의 문양과 용도이다.

사용된 문양은 역시 盤長, 金魚, 如意紋 등의 寶紋과 쌍용문, 학문 등으로 袈裟, 가마장식, 卓衣 등에 사용되었다.

5) 중조직 직물

본 조사에서는 錦緞 1점, 蟒緞 6점, 壯花緞 3점, 織錦 3점, 織金緞 7점, 花緞 6점으로 모두 26점의 중조직 견직물이 있었다. 중조직 견직물은 바탕조직을 이루는 경사와 위사 외에 무늬조직을 이루는 다른 별도의 경사와 위사가 있어서 부직 혹은 능직으로 무늬를 나타낸 것으로 이러한 문양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주로 금·은사와 색사 등이 사용된다.

고려시대에 특히 유행했던 加金, 加銀 직물이 본 연구의 제1기에서 뿐만 아니라 왕실에서 腹藏한 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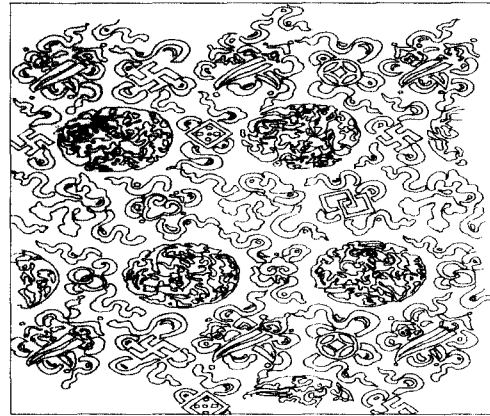
<표 6> 사찰직물 중 익직물의 문양과 용도

시 기	제2기		제3기		
	無紋羅(N=1)	紋羅(N=3)	紋紗(N=2)	無紋羅(N=5)	紋羅(N=5)
문 양	.	쌍용보문	寶紋, 盤長, 金魚, 如意紋	.	쌍용보, 원형壽, 小花
용 도	조각	사리구방석, 가마장식	袈裟, 가마장식	卓衣, 가마장식	卓衣, 袈裟, 보자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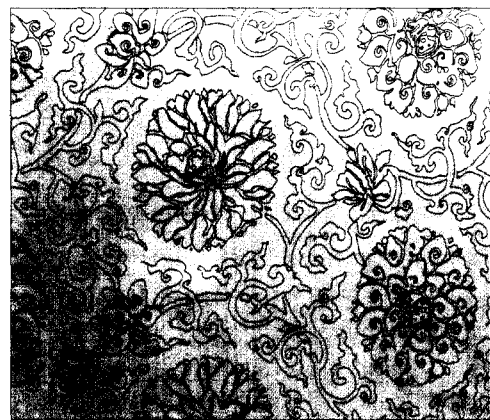
석사 소장직물과, 박윤미 등의 보고에서도 없었다. 그 이유로는 먼저 고려시대에 특히 발달했던 加金 기술이 조선초기에 갑자기 쇠퇴한 것은 아니며 조선초기 승유역불 정책이 펼쳐지면서 佛腹藏 직물에서도 간소화가 이루어졌으며 고려의 귀족사회에서 조선초 유교중심의 사회로 전환되면서 화려한 것보다 실용적인 것을 요구하는 사회상을 반영하여 단순화가 이루어진 결과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제2기, 제3기로 가면서 비교적 그 비중이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불복장은 14세기에 유행하였으며 고려말까지는 조계종에서 불복장을 설치한 불상을 만들었다는 사례가 아직 없고 주로 화엄종에서 밀교사상을 도입하여 제작하였다. 그리고 조선전기 성리학자에 의해 심하게 불교가 배척되었을때에도 전통적인 고려불교의 경건성을 비교적 잘 유지하였던 조계종만이 유지될 수 있었으므로 이 시기에는 불복장이 크게 발달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조선후기에는 조계종의 후신인 선종만이 존재하면서 고려의 불복장과 불교의례가 통합적으로 사용되고 불복장도 불교계에 널리 유행하였다.¹⁶⁾는 것으로 보아 그 시대의 사회상을 그대로 반영한 결과라고 여겨진다.

다음 <표 7~8>는 사찰직물 중 중조직 직물의 문양과 용도이다.



(사진 7) 직금단-통도사 소장, 방석



(사진 8) 화단-통도사 소장, 탁의

<표 7> 사찰직물 중 제2기 중조직 직물의 문양과 용도

시 기	제2기		
	壯花緞(N=1)	織金緞(N=2)	花緞(N=1)
문 양	별집, 버	雲紋, 如意紋, 寶紋, 花紋	花紋
용 도	가마장식	보자기, 가마장식	가마장식

<표 8> 사찰직물 중 제3기 중조직 직물의 문양과 용도

시 기	제3기					
	錦緞(N=1)	蟒緞(N=6)	壯花緞(N=2)	織錦(N=3)	織金緞(N=5)	花緞(N=5)
문 양	기하학문	龍紋, 如意紋	龍, 雲, 산	가모줄, 세로줄, 문자	寶紋, 花紋, 원문	당초문, 花紋
용 도	卓衣	袈裟, 日傘	卓衣	가마장식	方席, 卓衣, 가마장식	卓衣

중조직직물은 卓衣, 袈裟, 日傘, 가마장식, 方席 등에 사용되었으며, 문양은 대부분 寶紋, 花紋, 雲紋, 龍紋, 이무기, 산 등 다양하게 사용되었다.

(사진 7)은 통도사에 소장되어 있는 직금단 방식 직물의 문양으로 역시 서각, 전, 등의 보문이 사용되었으며 (사진 8)은 탁의에 사용된 화단직물의 화문양이며 (사진 9)는 탁의에 사용된 장화단 직물의 용문과 구름 등을 도식화로 표현한 것이다.

이상으로 사찰직물 중에는 주자직물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으며, 모든 유형의 직물이 각종 불교의 의식구에 널리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장식효과가 뛰어난 卓衣, 日傘, 袈裟, 가마장식 등에는 금사와 색사를 사용한 중조직의 다채롭고 화려한 직물이 주로 사용되었다.

2. 시기 특성

1) 제1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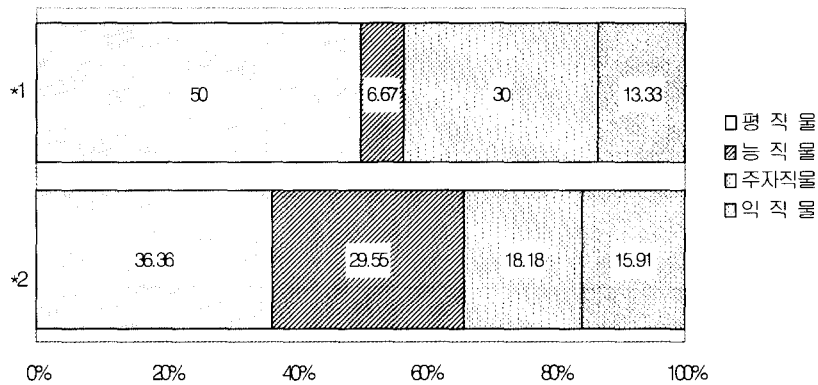
<그림 2>는 본 연구에서 조사하지 못한 제1기 사찰직물의 유형별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정리한 것으로 제1기 유물인 흑석사에 소장된 직물¹⁾에는 평직물의 비중이 50%로서 가장 높지만 주자직물인 緞직물의 비중도 3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조선초기임에도 불구하고 왕족의 불복장직물

에서는 불교의 길상문양 등을 직조한 紋緞직물이 비교적 많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고려의 공민왕이 하사한 것으로 전하는 안동 태사묘의 직물유물 5점 중에 3점이나 緞직물인 것으로¹⁸⁾ 보아 왕실 및 귀족층에서는 고려말기~조선초기부터 緞직물을 비교적 많이 사용했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그러나 고려시대의 대표적인 직물유물인 1302년의 아미타불 복장 견직물 총 190여점 중 2점만이 緞직물이다.¹⁹⁾ 그리고 박윤미·정복남이 조사한 1500~1600년대 복장직물 중 緞직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총 44점 중 8점(18.18%)으로 20%가 안된다. 그러므로 고려말기부터 조선시대 제1기는 緞직물이 발전하는 과도기적인 시기로 보는 것이 더욱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흑석사 유물은 왕실의 佛藏직물임에도 불구하고 다채로운 색사나 금사를 함께 사용하여 중조직으로 제작한 특수직물은 1점도 없으며 박윤미·정복남²⁰⁾이 보고한 제1기의 佛藏 직물에도 평직물의 비중이 가장 높으며, 중조직직물은 1점도 없다.

그러므로 제1기에 유통된 견직물 중에서는 평직물이 가장 많았고, 주자직물, 능직물 등이 그 다음이며, 고려시대에 특히 발달한 익조직의 비중은 줄



*1: 흑석사 소장 견직물의 유형별 출현율(제1기)

*2: 박윤미·정복남이 보고한 佛藏 직물의 유형별 출현율(제1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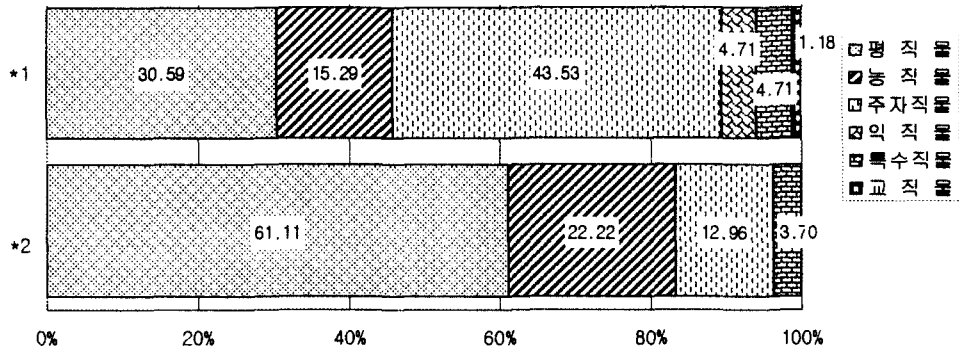
<그림 2> 제1기 견직물의 유형별 출현율

어떻게 중조직으로 제작한 織錦 종류는 조선시대에 들어오면서 많이 유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불교 중심의 귀족사회인 고려시대에서 유교 중심의 조선시대로 넘어오면서 나타난 일시적인 현상으로 腹藏物의 간소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며 이 시기 유행했던 조계종파의 특성상 불복장이 크게 유행하지 않은 것도 그 이유라고 생각된다.

2) 제2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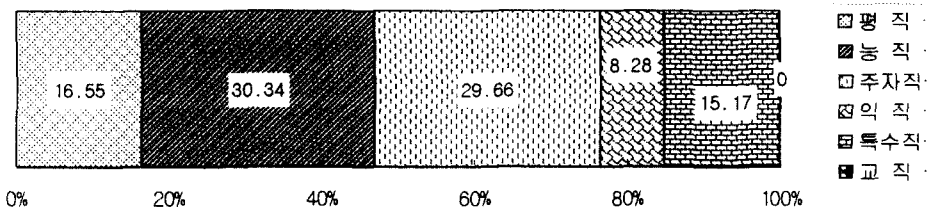
본 연구 결과 제2기에는 주자직물의 비중이 오히려 평직물보다 다소 높으며 제1기 왕실의 복장품으로 알려진 흑석사 유물에 1점도 없었던 중조직직물이 다시 나타난 것이 특징이다. 그리고 박윤미 등의 보고에서는 평직물의 비중이 월등하게 높았으며 그 다음 능직물, 주자직물의 순이었으며 중조직직물의 비중은 본 연구결과와 비슷했다(그림 3).

<그림 4>를 보면 능직물이 주자직물의 비중보다 조금 더 크게 나타났지만 여전히 주자직물의 비중이 높으므로 綴직물이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직물로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다음이 평직물이며 중조직직물의 비중이 전 시기에 비해 훨씬 증가하고 있다. 제1기에서 감소했던 중조직 견직물의 비중이 다시 증가한 이유로는 특히 정조대 이후 중국과의 교역품 중 다양한 중조직의 견직물이 상사 및 하사 등의 형태로 국내에 수입²¹⁾된 결과와도 일치하며 조선후기 유행했던 선종불교에서는 불복장이 성행했으며 불교행사시 사용하던 의식구에도 이러한 직물이 많이 사용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1: 본 연구 결과 유형별 출현율(제2기)
 *2: 박윤미·정복남이 보고한 佛腹藏 직물의 유형별 출현율(제2기)
 <그림 3> 제2기 견직물의 유형별 출현율

3) 제3기



<그림 4> 제3기 견직물의 유형별 출현율

3. 문양 특성

본 연구 결과 사찰직물 중 평직물을 제외한 문직물 즉 능직물, 주자직물, 익직물, 특수직물에 나타난 문양을 분류하면 다음 <표 9>와 같다.

2개 이상의 문양이 복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보다 1개의 문양이 단독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조금 더 많다.

단독문양에서는 식물문양의 비중이 월등하게 높고, 그 다음 寶紋, 기하학문, 雲紋, 동물문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찰직물 중 식물문양이 많은 것은 본 조사뿐만 아니라 1302년 아미타불 복장유물²²⁾, 조선전기 흑석사 소장직물²³⁾ 등에서도 같은 결과이다.

복합문양에서는 동물문과 식물문의 조합이 가장 많으며 그 다음은 식물문과 기하학문의 조합, 寶紋과 식물문의 조합, 雲紋과 동물문의 조합, 동물문과

寶紋 그리고 식물문의 3개 문양이 조합된 것 순으로 나타났다. 동물문양이 단독으로 사용된 경우는 극히 드물었지만 용 등의 상서로운 동물문과 다른 문양이 복합된 형태로는 비교적 많이 사용되었으며, 불교의 길상문양인 寶紋이 단독 또는 다른 문양과 복합 형태로 많이 사용되었다.

IV. 결론 및 요약

230점의 사찰 견직물에 대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전체적인 비중이 주자직물(34.78%) > 능직물(24.78%) > 평직물(21.74%) > 증조직물(11.3%) > 익직물(6.96%) > 교직물(0.44%) 순으로 주자직물이 가장 많았다. 가장 평이하게 제작할 수 있는 평직물보다 주자직물의 비중이 높게 나타난 것은

<표 9> 사찰직물의 문양 종류

유형 시기	문양	단독문양					복합문양									
		동물문	식물문	기하학문	雲紋	寶紋	동물문+식물문	식물문+기하학문	雲紋+寶紋	기하학문+寶紋	寶紋+식물문	동물문+寶紋	雲紋+동물문	기하학문+동물문	동물문+寶紋+식물문	동물문+식물문+기하학문
능직물	제2기	0	1	1	1	0	2	1	0	0	1	0	0	0	0	0
	제3기	1	4	3	0	4	13	4	0	0	0	0	4	0	0	1
주자직물	제2기	0	4	0	1	13	1	1	0	0	3	0	0	0	0	0
	제3기	0	12	1	1	8	1	3	0	0	2	0	0	1	0	0
익직물	제2기	0	0	0	0	0	1	0	0	0	0	0	0	0	0	0
	제3기	0	2	2	0	1	1	0	0	0	0	1	0	0	0	0
특수직물	제2기	0	1	0	0	0	0	1	1	0	1	0	0	0	0	0
	제3기	0	6	3	0	2	6	1	0	1	0	0	0	0	2	0
소 계		1	30	10	3	28	25	11	1	1	7	1	4	1	2	1
총 계		72					54									

추후 다른 후속연구결과와 비교해 보아야 할 과제이지만 아무튼 장식과 소원성취 등의 목적을 위해 고급스러운 직물로 정성을 다해서 제작하는 사찰직물의 특성상 출토직물보다는 비교적 주자직물의 사용빈도가 높았을 가능성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그리고 직물의 종류별로 주자직물의 紋緞과 평직물의 紬가 가장 많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2. 조직유형별로 살펴보면 먼저, 평직물에는 絹, 紬, 絹3가지 유형이 존재하며 紬의 비중이 가장 높으며 絹는 출토직물에 비해서는 비교적 많이 볼 수 있다. 능직물에는 平地浮紋綾, 平地綾紋綾, 綾地綾紋綾, 綾地無紋綾의 유형이 존재하며 이중에서는 平地浮紋綾, 綾地綾紋綾의 비중이 대체로 높다. 그리고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주자직물에는 無紋緞, 紋緞의 유형이 모두 존재하며 이중에서는 紋緞의 비중이 월등하게 높다. 의직물의 사용은 고려시대에 비해 훨씬 줄어들었고 2經紋羅 등의 단순한 교경조직에 의한 紋紗, 無紋羅, 紋羅를 볼 수 있었다. 금사 및 색사를 사용한 다채로운 중조직의 특수 직물은 사찰직물에서 비교적 다양한 유형을 볼 수 있었다.

3. 제1기에 대한 실증적 고찰은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선행연구의 결과를 정리하면 제1기에 유통된 견직물 중에서는 평직물이 가장 많았고, 주자직물, 능직물 등이 그 다음이며, 고려시대에 특히 발달한 의조직의 비중은 줄어들고 중조직으로 제작한 織錦 종류는 조선시대에 들어오면서 많이 유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불교 중심의 귀족사회인 고려시대에서 유교중심의 조선시대로 넘어오면서 나타난 일시적인 현상으로 腹藏物의 간소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며 이 시기 유행했던 조계종파의 성격상 불복장이 크게 유행하지 않은 것도 그 이유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제2기, 제3기로 가면서 주자직물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게 되어 조선시대를 緞의 시대라고 하는 타 선행연구 결과를 입증할 수 있었으며 색사 및 금사 등을 가해서 더욱 다채롭게 제작하는 중조직의 견직물도 조선후기에 다시 발달했음을 알 수 있었다.

4. 문직물에는 2가지 이상의 문양이 조합된 복합 문양보다는 단독문양이 많이 사용되었다. 이 중에

서도 특히 식물문양이 많이 사용되었으며 그 다음은 불교의 길상문양인 寶紋, 기하학문, 雲紋, 동물문 등의 순으로 사용되었다. 그 반면에 동물문양이 단독으로 사용된 경우는 매우 드물지만 용 등의 상서로운 동물문과 복합된 형태로 동물문양이 사용된 것은 더러 발견할 수 있었으며 불교길상문양인 寶紋이 다른 문양과 복합된 형태로도 많이 사용되었다.

5. 본 연구는 직물의 소장지별 특성을 살펴보기 위한 첫단계로 사찰직물의 특성을 고찰하였으며 제1기에 해당하는 실증자료의 부족으로 조선시대 전반에 걸쳐 실증적으로 고찰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이 한계로 남는다. 특히 1기의 직물은 불복장직물, 2,3기는 소량의 불복장직물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사찰에서 장식구 등의 용도로 사용된 직물이므로 엄격한 용도 비교는 곤란하지만 추후 연구보완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 1) 김영숙, 조선전기 불복장직물의 이해 -육석사 아미타 불 복장직물-, 미술문화, 1997
박윤미·정복남, 불복장직물을 통하여 본 조선시대의 직물연구 I, 복식 제36호, 1998
박윤미·정복남, 불복장직물을 통하여 본 조선시대의 직물연구 II, 복식 제42호, 1999
조효숙, 조선전기의 견직물 발달에 관한 연구 II -14세기와 15세기 복장직물의 비교-, 아세아 문화연구 제1집, 중국 중앙민족대학 한국문화연구소 한국경원대학교 아세아문화연구소편, 민족출판사, 1996
- 2) 제1기 : 1392년~임진왜란전 16세기까지
제2기 : 임란후 17세기~18세기 초반까지
제3기 : 18세기중반(영,정조대)~19세기까지
권영숙·이주영, 조선초·중기 여자 장의제도 -임란전·후 출토유물을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가정대학 연구보고 제21집, 1996, p.122
- 3) 김영숙(1997), 앞책
- 4) 박윤미·정복남(1998, 1999), 앞논문
- 5) 浮屠의 조성연대, 직물에 적혀 있는 기록(예: 신정왕후 탄신일(1831년)에 하사받은 직물→제3기) 등에 따라 제2기, 제3기 등으로 분류하였음
- 6) 林園經濟地(5) 倪圭地 八城場市條
- 7) 태종실록 권 34 태종 17년(1417) 8월 22일(을사), 중종실록 권 25 중종 11년(1516) 5월 29일(기유)
- 8) 온양민속박물관, 1302년 阿彌陀佛腹藏物의 調査研究 -

- 阿彌陀佛腹藏 직물의 분석-, 1991, p.119
- 9) 연산군일기 권 58 연산군 11년(1505) 7월 19일(임인), 중종실록 권 7 중종 3년(1508) 1월 6일(경자),
 - 10) 태종실록 권 31 태종 16년(1416) 5월 8일(을해)
 - 11) 연산군일기 권 53 연산군 10년(1504) 5월 20일(기유)
 - 12) 영조실록 권 57 영조 19년(1743) 4월 14일(정유)
 - 13) 영조실록 권 64 영조 22년(1746) 12월 15일(병자), 練藝室記述 別集 권 30 政教典故, 영조실록 권 112 영조 45년(1769) 2월 21일(갑술)
 - 14) 중종실록 권 25 중종 11년(1516) 5월 29일(기유)
 - 15) 광해군일기 권 26 광해군 2년(1610) 3월 4일(경진)
 - 16) 許興植·南權熙·金英淑·權淳貞, 高麗의 佛腹藏과 染織 -1302년 織造環境과 織物의 特性-, 계몽사, 1999, pp.120~122
 - 17) 김영숙(1997), 앞책
 - 18) 원희정·장현주·백영미·최석철·권영숙, 안동대사묘 소장 고려후기 직물의 제작특성, 전통복식 학술총서 2, 2000
 - 19) 온양민속박물관(1991), 앞책, p.131
 - 20) 박윤미·정복남(1998, 1999), 앞논문
 - 21) 정조실록 권2 정조 즉위년(1777) 8월 18일(정사), 정조실록 권 2 정조 즉위년(1777) 10월 27일(을축), 정조실록 권 15 정조 7년(1783) 2월 27일(무자), 정조실록 권 17 정조 8년(1784) 2월 17일(계유), 정조실록 권 39 정조 18년(1794) 2월 22일(경진), 정조실록 권 48 정조 22년(1798) 2월 19일(계축), 순조실록 권 5 순조 3년(1803) 2월 27일(임진), 순조실록 권 30 순조 28년(1828) 2월 26일(병신), 현종실록 권 4 현종 3년(1837) 9월 12일(정해)
 - 22) 허홍식·남권희·김영숙·권순정(1999), 앞책
 - 23) 김영숙(1997), 앞책